

협회소식

협회장동정



▷ 7월4일 :쇠고기이력시스템 중간보고회(농림부 대회의실)

▷ 7월5일:대한제당 창립기념식(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 7월11일 :서울우유 창립69주년 기념식(서울우유 대강당)

▷ 7월12일 :한-미 FTA저지 국민 총 켈기대회(서울시 청야광장)

▷ 7월21일 :가축개량 목표설정을 위한 축산물 소비형태와 향후전망(안성 교육원)

2006년도 젖소심사기술교육 성료

본회는 지난 6월28일~30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충남 성환소재)에서 각도시?군의 젖소개량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검정위원, 유전자원 및 관련업체 관계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젖소심사기술 교육을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젖소심사기술교육은 젖소개량 및 심사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술습득을 바탕으로 농가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우량 종축선발로 젖소개량 방향제시 및 지도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등록실무와 젖소심사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2006년 하반기 가축개량정책(농림부 축산정책과 농학박사) ▲젖소등록실무(등록팀장 박상출), ▲심사이론교육(심사팀장 양신철/심사과장



김은길), ▲목장에서 효율적인 질병관리(서울우유협동조합 서부낙농지원세타장 김영찬), ▲젖소 체형을 통한 생산능력 판단(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 전병순)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있었고, 오후 시간에는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직접 소를 심사해보는 실무적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한 교육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가축유전능력 프로그램 교육

축산연 김시동 박사 초청 특강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18일 하오 3시부터 6시30분까지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김시동박사를 초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축육종가 분석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주제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김시동박사는 한우·젖소·돼지 등 주요가축에 대한 혈연계수와 근교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세계 선진국에서 주로 연구·평가하여 활용하는 가축의 유전능력 프로그램(MDT·JAA)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와 관련 조병대회장은 “협회 대부분의 직원들은 가축유전능력에 관한 많은 지식이 겸비되어 있으나 보다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가축육종가 프로그램 설정에 따른 세계적인 개량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오는 9월에도 실시하여 종축개량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검정회 소식>

아산검정회, 2006년도 단합대회 개최

아산검정회(회장 류수일)에서는 2006년 7월 20일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발족한 아산검정회는 매년 3월에는 선진지 견학, 7월에는 단합대회, 9월 체육대회, 10월 한국출스

협회소식

타인품평회 참관, 11월 우수목장 방문, 12월에는 송년회를 개최하는 등 모범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류수일 회장과 이광주 총무는 개인보다 조직을 생각하고, 회

원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젓소개량사업을 선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있다.

아산시 축산 발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힘이 되고 있는 아산시청 김동영 축산담당은 19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혈통등록우



의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산시는 친환경 축산을 이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하고 있다.

▷ 첫째 축산분뇨의 합리적 처리:분뇨를 토양에 환원하고, 경종농에 자원으로 활용하기 발효를 위한 교반기, 퇴비 살포기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둘째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유휴지에 호밀, 보리 등을 재배하여 국토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입조사료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사료단지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셋째 사육시설 환경개선:여름철 고온에 대비하기 위한 환기시설과 겨울철의 추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하여 공동 브랜드 지원 사업과 사료 자동급여기, 소화기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주)중앙진테크, 사원모집

축산업의 유전자 개량사업에 기초를 두고 인공수



업계소식

정 기술 및 기자재를 개발, 국내 공급, 국외 수출에 앞장서 가는 (주)중앙진테크에서 하반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집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내 용:경력 및 신입 모집
- ▷ 업무내용:축산 기자재 및 정액 영업
- ▷ 근무지역:서울
-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 접수방법:메일 (drkzkfto@lycos.co.kr)
- ▷ 마감일:채용시가지
- ▷ 담당자:조직회 부장
- ▷ 연락처:(02) 587-1388

(주)애그리브랜드 푸리나코리아, 건유우

TMR(티엠알) 소개

(주)애그리브랜드 푸리나코리아(대표이사 정학상)는 지난 11일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충남지역 150여명의 낙농인들이 모인 가운데 푸리나 건유우 TMR(티엠알) 소개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박용순 푸리나코리아 제2지구 이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고능력우 사육의 최대 문제점은 번식장애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시간이 번식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성수 푸리나코리아 특수판매 부장은 “21세기 낙농의 생존목표는 평균유량 1만2000kg, 체세포수 10만, 번식간격 13개월 그리고 평균 산차 3.0산이다”고 전제 하며 “위의 네가지 생존목표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번식간격 단축이다”고 강조했다.장 부장은 이어 “번식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건유기와 전환기의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푸리나 건유우 티엠알 사료는 건유기때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및 섭취량 문제를 해결하고 전환기 때 사료 적응을 빠르게 하며 편리하게 급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이날 참석한 낙농가들은 푸리나 건유우 티엠알 사

업계소식

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20여명의 낙농인들이 축사에서 건유우 티엠알 사료를 주문하기도 했다고 푸리니축은 전했다.

방역본부, 노천섭 신임 전무 취임식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7월 10일 신임 노천섭 전무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서 최상호 본부장은 “지난 7년 동안 방역 본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 근절하면서 최일선에서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조직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노천섭 전무의 취임을 통해 또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천섭 전무는 취임사에서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료채취, 예찰, 예방접종 등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방역본부 전 임직원은 양축농가와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농장 방문시 친절과 정성을 다해야 하며, 가축방역과 위생 등 정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양축농가의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들은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화합하여 직장의 가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수의병과장을 지낸 노천섭 전무는 경상대 수의학과와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77년부터 '05년까지 28년간 군에서 방역과 수의, 식품검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육군수의병과장 및 대한수의사회 군진지부장을 역임했다

진흥회, 기준량 인수도 관련 제도개선 단행

‘목장폐업’은 ‘진흥회와의 생산계약해지’를 의미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는 지난 7월 13일 2006년 제1차 임시 기준원유량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원유량 인수도 승인과 관련한 두 가지 제도개선을 7월18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 중 첫째 조치는 ‘기준원유량인수도 전제 조건인 목장폐업의 개념을 진흥회와의 생산계약해지로 정의’한 것으로써 진흥회에 납유하던 농가가 목장폐업 및 기준 원유량을 인도한 후에 다른 유업체의 쿼터를 매입하고 해당 유업체로부터 납유 승인을 득할 경우 낙농경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조치는 ‘1가구 2목장인 낙농가가 2목장을 모두 폐업해야만 기준원유량 인수도 승인되는 것을 한 목장만 폐업해도 기준원유량 인수도를 승인키로 한 것’으로서 1가구2목장의 폐업요건이 완화되었다.

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원유량 인수도 제한조치는 2002년 11월 진흥회가 잉여원유치등 가격제를 실시할 당시 다른 유업체는 이런 생산조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진흥회 낙농가가 폐업하면서 기준원유량을 인도하고 다른 유업체로 가서 납유 할 경우 전국적인 원유 증산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으나, 이제 대부분의 유업체가 쿼터를 시행하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제한을 유지할 의미가 사라졌다”고 이번 제도개선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우유, 1·2공장 통합방안 모색

서울우유는 1공장과 2공장이 위치해 있는 양주시와 용인시가 도시 화되고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최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술 조합장은 최근 본 조합 양평룸에서 열린 대의원협의회(회장 원유국) 운영위원회에서 “1공장이 위치해 있는 회천읍이 재개발단지 옥정지구로 편승되어 APT가 밀집 될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이미 도시화된 용인시 신갈 2공장과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총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대의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통합공장 설립계획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겠지만 금년중 시작해도 오는 2010년이 되어야 완공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통합공장의 시설

업계소식

은 이익이 많은 발효유를 비롯한 가공우유 생산에 주력하여 남은 이익으로 생우유 생산과 판매 하는데 따른 손실을 메워 원유생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현재 적용 중인 조합의 원유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원유쿼터제가 전면 시행 될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있다 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관련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석근대의원(백운목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원유관리규정으로는 앞으로 정부가 원유쿼터제를 전면 시행하거나 입력을 가할 경우 조합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그 규정을 원유관리규약으로 변경하고 추진을 받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이동영영업상무를 상임이사로 추진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전국한우협회, 한우후계자교육 개최

2006년 7월 3~4일 천안연암대학에서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한우협회 주최로 한우후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우산업 정책방향에 대하여 농림부

축산경영과 신대식 사무관의 강의가 있었고, 변화하는 우리농업을 위한 가치 창조에 대해서는 한국벤처농업대학 전주인일 교수, 브루셀라 문답집 및 예방수칙에 대해서는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교육이 있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축산연구소, 수의과학검역원, 한우자조금위원회, 가축방역지원본부,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의 담당자들이 참가하여 한우후계자들에게 기관소개가 있었다.



한우·젖소 교잡우 '먹치' 혈통 위협

젖소에 한우 정액 수정, 무늬만 한우... 가축시장서 버젓이 매매

한우정액을 젖소에 넣어 생산된 교잡우(F1·F2·F3, 일명 먹치 또는 먹통)가 가축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매매되어 한우의 혈통보존과 개량사업을 크게 위협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축산전문가들에 따르면 90년대 후반부터 한우가격이 오르는 반면 원유가 잉여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낙농가들이 젖소에 한우정액을 넣어 F1교잡우를 속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양산되는 먹치는 20개월 내외까지 비육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대부분 생후 5개월 전후에서 중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중간상인들은 이 먹치를 가축시장을 통해 일반농가에 매매하는 사례가 비밀비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우정액을 젖소에 넣어 교잡우를 생산하는 일을 일찍 시작한 일부 농가에서는 최근 F2에 이어 F3까지 생산되고 있는데 교잡이 대를 거듭할수록 모색은 거의 한우와 비슷하고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축시장을 통해 매매하고 있어 한우개량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김제시 S씨는 "과거에 추진됐던 강화도육용회사업 또는 제주교잡사업 등은 한우의 혈통보존과 올바른 개량사업을 위해 특정한 지역에서 별도로 사육되고 도축이 이뤄진 관계로 한우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근년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먹치에 또다시 한우정액을 넣어 3대교잡우까지 생산해 일반 가축시장에서 한우로 둔갑 판매하고 있어 한우개량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시 G씨는 "먹치의 한우혈액비는 F2가 75%이며 F3의 경우는 87.5%로 혈청검사를 하지 않

업계소식

고는 교잡우인지 구분하기 사실상 힘들어 전국적으로 일반농가에까지 침투되고 있어 한우개량사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먹치들이 일반가축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먹치는 암수모두 비육 후 도축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축산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원군 K씨는“먹치가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자가 인공 수정하는 낙농가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교잡우송아지 생시체중이 젖소보다 적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초산우 분만을 향상을 위해 한우정액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귀표 전국 규격화… 농림부, 부루세라병 방역 일환

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 일환으로 농림부는 소 귀표를 전국적으로 규격화하고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채혈시 부착토록 했다.

의무 검사대상도 10마리 이상 한우 사육농장,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로 확대하고 다발지역 일제검사도 의무화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한육우 암소에 대해 검사증명서 위·변조 및 둔갑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 귀표를 전국적으로 규격화하고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채혈시 부착토록 했다.

의무검사 대상도 현행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에서 10마리 이상 한우 사육농장과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로 확대하고 다발지역 일제검사도 의무화했다.

발생농장이동제한 기간 및 재검사 횟수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재검사 횟수를 30~60일 간격으로 2회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까지 3개월이 소요되던 데서 60일간격 3회검사로 이동제한 해제까지 6개월이 소

요된다.

보상금의 적정 평가를 위해 체중 측량시 저울 계근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는 보상평가 자료에 저울 측정 상황 및 중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첨부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외에도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시·군별 한육우 농장 명단에 대해 이번달부터 9월까지 전산화하고 지역별 감염률 공표도 이번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시, 소 부루세라병 근절대책 추진

인천시는 소에서 유산, 사산, 불임 등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부루세라병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06. 7.13 소 부루세라병 검진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고시했다.

우리시 관내에는 한육우 655호 15,430두, 젖소 106호 4624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에 한육우 사육농가 3호에서 19두의 소 부루세라병이 발생하여 9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바있다.

앞으로 강화 시행되는 부루세라병 검사 및 관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도축장이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1세이상에 한하여 부루세라병 검사 및 증명서를 휴대했으나 '06. 9. 1부터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까지 확대 운영한다.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가는 년 2회이상 부루세라병 정기검사를 하고 소 수집상.중계상은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루세라병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이동제한 해제기간은 현행 2회의 재검사를 통한 2~3개월에서 3회의 재검사를 거쳐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부루세라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도 '06. 11. 1부터는 시세의 80%, '07. 4. 1부터는 시세의 60%까지로 감액 지급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을 일깨워 부루세라병의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업계소식

인천 시에서는 검진대상 가축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로 감염 축색출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한 부루셀라병 조기 근절을 위하여 가축위생시험소, 군·구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공수의 등을 중심으로 채혈반을 편성하여 소 부루셀라병 일제검사를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는 소 부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소 구입시에는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장의 철저한 소독실시를 당부하고 있다.

"2013년까지 부루셀라 근절"...경북도 4단계 방역대책 수립...농가합조 당부

경북도가 최근 소 부루셀라병 확산방지와 근절을 위하여 오는 2013년까지 부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단계별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도가 이번에 수립한 방역대책은 우선 1단계인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근절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2단계인 2009년까지 발생을 최소화, 3단계인 2011년까지는 청정화 추진, 마지막 4단계인 2013년에는 청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대책으로는 도축장 및 가축시장 출하소 중 생후 12개월 이상 한육우 암소에 대하여 부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던 것을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하는 한육우 암소와 10두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농장의 한육우 및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다발지역이나 자연종부용 수소 등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농가의 부루셀라병에 대한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11월부터는 살처분 보상금을 현재 시가 평가액의 100%에서 80%로, 내년 4월부터는 60%로 감액하여 지급키로 하는 등 부루셀라병 조기 근절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루셀라병이 문전거래 등 타지역에서 구입한 소와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발생하는 등 방역의식이 미흡한 농

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농가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료용 옥수수 수급 '적색경보'

세계 옥수수 수요량 증가로 사료용 옥수수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사료·축산업계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료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후 내년도 세계 옥수수 수급 상황은 옥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생산량 증가보다도 더 큰 수요량 증가로 인해 옥수수 수출이 어려워지는데다 아르헨티나는 생산이 가변적이고, 브라질은 자국내 에탄올 생산 증가로 인해 자국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우는 지난 3개년 동안 지속적인 풍작을 기록함으로써 재고수준이 5천5백만 여톤이었으나 올 하반기 이후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어든 2천7백여만톤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현상은 미국이 옥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함으로써 옥수수 수요량이 에탄올 수요 증가로 인해 그동안의 사료용 중심에서 앞으로는 에탄올생산용 중심으로 옥수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세계 사료용 옥수수 수급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도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100% 상승하는가하면 국제 옥수수가격도 135불하던 것이 150불 가까이 오르는 등 옥수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는 미국산 옥수수를 연간 450만~500만톤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물량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현지를 다녀온 관계자는 "현재

업계소식

미국은 에탄올 10%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관계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두, 소맥 등의 작목이 옥수수로의 작부변화가 전망되며, 현재 휴경지에서의 옥수수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에탄올 생산을 위한 미국내 옥수수 사용량은 7천만톤 이상 증가하여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옥수수 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여 국내 사료산업 및 축산업의 국제 경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원료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료값 인상 움직임...농가 "안돼"

업계 "옥수수 가격 급등" 9월경 인상 검토에, 농가 "상승폭 2004년보다 적고 환율도 안정"

사료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료업계는 최근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과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경 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지역 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원료의 40%를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8월까지는 사전에 구매 원료로 소진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상승한 옥수수가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7월 17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톤당 156.38달러(CBOT기준)로 올 1월 평균 가격 139.79달러보다 11.8% 상승했다.

A사료업체 관계자는 "국제 원유가격과 국내 경유가격의 상승으로 운임비도 급증했다"면서 "원료가격 상승 등 국외상황이 악화돼 현재 사료가격과 관련 인상

시기 및 인상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료업체들의 사료가격인상 검토가 알려지자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PMWS 등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높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료가격인상은 자칫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료업체들이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한 것일뿐 최근 곡물가격상승폭은 2004년 곡물가격이 폭등했던 시점보다 적고 환율도 상당히 안정됐기 때문에 사료가격인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곡물가격이 폭등했던 2004년 5월 옥수수 208달러, 대두 448달러, 대두박 425달러에 달했고 원달러 환율도 1165원으로 사료업체들은 이 시기 세차례에 걸쳐 약 30%의 사료가격을 인상했었다. 이후 곡물 가격안정으로 2004년말부터 2005년초까지 15% 전후의 가격인하를 단행한 사료업체들은 올 3월 약 2% 추가인하했다.

2005년 곡물평균가격을 보면 옥수수 150달러, 대두 290달러, 대두박 272달러로 최근 가격보다 높지만 사료가격은 오히려 인하됐었다. 또 환율도 2005년 평균환율 1042.25원보다 104원이 낮은 938.93(7월 기준)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 환율 10원당 사료가격 변동폭이 0.3%라는 업체 주장을 반영해도 3%의 인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경기 이천의 양돈농가는 "돈버는 양돈장은 10% 전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의 사료가격인상은 농가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료업계의 한 전문가도 "사료회사들의 지나친 과당·할인경쟁으로 대부분 특정농가에 대한 인하만 이뤄졌을 뿐 전체 인하는 전무해 혜택본 농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사료업체들의 잘못된 가격정책으로 발생한 경영난을 가격인상으로 농가들에게 책임을 떠

업계소식

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양지역 낙농가 “부루세라 예방…특단대책 시급”

고양지역 낙농가들은 “소 부루세라로 인해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고양지역 낙농가들에 따르면 2년전 한우농가에서 발병된 부루세라가 낙농목장까지 확산되어 서울우유로 하루 평균 2천5백kg을 납유했던 G목장과 1천5백kg을 납유했던 J목장은 그동안 길러왔던 젖소를 살처분 하고 폐업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부루세라가 하루 평균 4천6백kg의 원유를 서울우유로 납유했던 D목장까지 확산되어 D목장은 능력이 우수하지만 부루세라에 전염된 젖소를 수차례에 걸쳐 땅에 묻어 최근 D목장 납유량은 1천6백kg이 감소해 3천kg내외라는 것이다.

또 E목장도 많은 두수가 부루세라에 감염되어 하루 평균 1천kg이 넘었던 납유량은 최근 7백kg으로 3백kg 이상 줄어들어 목장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양지역 B씨 등 낙농지도자들은 “이같이 부루세라가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경우 국내 낙농업계에 미칠 파장은 실로 클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부루세라 백신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놓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콜레스테롤 뺀 유제품 나온다

최근 성인병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콜레스테롤을 제거한 유제품이 나올 전망이다.

세종대 식품공학과 곽해수 교수는 내달 9일 미국의 축산학회와 낙농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2005년 전세계에 특허를 출원한 ‘우유 및 유제품의 콜레스테롤 제거에 관한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미국 기술거래소와 이 기술의 산업화에 관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곽 교수가 최근 유당불내증 해결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와 철분강화우유의 연구 및 산업화에 이어 개발한 이 기술은, 원유에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을 첨가해 우유와 유제품 속의 콜레스테롤을 90%이상 제거하고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을 재활용하는 기술로 유가공업체의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의 콜레스테롤 제거 기술은 주로 유지방 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왔는데, 식물성 기름의 경우 우유와 유제품 고유의 맛을 앗아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곽교수는 그러나 유제품 고유의 맛과 영양가를 유지한 채, 우유와 유제품에 함유돼 있는 콜레스테롤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곽 교수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난황과 돼지기름의 콜레스테롤 성분도 제거해 마요네즈와 소시지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술은 고혈압환자이거나 관련 산업계에 응용한다면 전세계에서로부터 발생되는 로얄티는 천문학적인 수치라는 것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경과는 미국에서 100여가지의 유가공 상품이 내년 7월정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 유제품의 한 품목인 아이스크림 매출액만도 연간 22조원으로, 전세계적으로는 100조에 해당하는 수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곽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콜레스테롤제거 유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산업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곽 교수는 “전세계적인 유가공분야의 신기술 및 신

업계소식

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우리 과학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비 이온성 계면활성제 [NIS(non-ionic surfactant)] 급어로



반추동물의 배설량 감소

NIS급어를 통한 섬유소 소화율 증진으로 분 배설량 감소와 환경오염 예방 가능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 축우PM

손근남 이사(사진)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반추동물은 섭취한 총 에너지의 10~30%만을 정미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는 사료내 섬유소의 50~70% 정도가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며, 기존연구 결과에 의하면 반추위 내에 존재하는 가수분해효소의 대부분(약 76%)은 미생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미생물 세포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료의 분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non-ionic surfactant(NIS/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acrylic acid polymers(AAP)의 혼합제제를 사용하면 세포내 효소와 세포벽 부착 효소를 밖으로 분비시키는 효과가 매우 높아서 벗집의 in vitro소화율을 30~45%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증가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NIS의 급어는 섬유소 소화율 증진으로 분 배설량 감소를 가져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손근남 이사는 non-ionic surfactant 급어가 젖소의 반추위 발효특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주제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 내용문의 : 손근남 이사 018-419-1193 ♣

2006 우성사료 한마음교육 실시



주식회사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7월 14~15, 21~22일 2차에 걸쳐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 위치한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2006 우성 사료 한마음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업, 관리, 생산관련 조직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리더쉽과 팀웍 (Self Leadership & Dynamic WOOSUNG)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제에 걸맞게 임영준 본부장(한국인력개발)의 오프닝 강의로 “당당한 리더로 변화를 즐겨라”라는 주제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덕목을 갖춰 팀웍을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내용의 강의를 시작으로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1일 차를 마감하고 다음날 새벽 모두가 속리산 최고봉인 문장대를 오르며 조직의 단합과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1박2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연세우유 · 푸리나코리아 전략적 제휴



주)에그리브랜드 푸리나코리아는 2006년 5월 12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연세우유와 축우사료 전략적 제휴식을 가졌다.

업계소식

앞으로 푸리나는 연세 우유와 함께 연세 납유목장에 특화 된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다. 이 제휴를 통하여 연세우유는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우유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연구소, 1일 명예소장제도 운영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축산관련기관 및 생산자(소비자) 단체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여 축산연구소의 업무현황 청취 및 연구업무 전반의 체계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호 협력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1일 명예소장제도를 운영하였다.

금번 제도의 운영에 따라 지난 7월 11일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이 초대 명예소장이 되어 1일 업무에 들어가 기관현황 및 과별 업무상황 청취 후 참석자들과 토론의 자리를 가진 뒤 생명과학관, 축분처리 연구현장을 방문하고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실증시험농가를 방문하였다.

국내 소 DNA 다형분석기술 세계최고 입증

— 축산연구소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비교동정 시험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초위성체 유전자 22개에 대한 분석결과로, 15년 이상 오랜 연구를 수행한 미국, 프랑스 등의 연구기관보다 많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이며, 이들 유전자는 모두가 타 연구기관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유전자로서 분석성적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30여개국 5개 전문연구기관이 참가한 2005년도 시험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9개 유전자 분석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었으며 각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하여는 제한없이 분석하여 그 성적을 '06. 6월초에 발표키로 한 것이다.

산업적 가치에 있어서는, 국내 종축의 생식세포 및 생축이 국외로 수출할 경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전자분석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며, 가축개량사업 수

행시 개체식별 및 친자감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초위성체 유전자(Microsatellites)란?

지금까지 소에서 2,200여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초위성체 유전자는 염색체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2~8개의 단순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유전자이다. 이 유전자는 다형이 많고 분석방법의 편리성 및 재현성이 높아 개체식별, 친자감별 및 생산물 이력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호우피해 입은 조사료(건초) 지원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 장마에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이희영 농가(한우 40두, 사슴 20두 사육) → 피해 : 사슴 2두 폐사, 건초·사료유

실)와 평창군 봉평면 김대수 농가(한우 40두 사육) → 피해 : 축사침수, 농경지 유실)에 건초사료 8,000kg 지원을 지원했다.

이천시, 2006년도 홀스타인품평회 발대식



이천시 검정연합회(회장 김동식)는 지난 26일 서울우유 동남부지도소에서 홀스타인품평회 발대식을 가졌다

업계소식

이번 발대식에서 대회장(회장 김동식)은 인사말을 통해 대외환경에 의해 살아남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80년대 낙농의 메카로 불렸던 이천에서 다시 불태울 수 있는 대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대식은 2005년 11월 전일본 홀스타인 공진회에 양봉직 계장(이천시청 축산과)과 함께 공진회 견학 후 이천에서도 지역품평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2006년 2월 검정연합회 총회에서 홀스타인 품평회를 개최하고자 결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3월 15일 홀스타인 품평회 추진위원회를 구성 4월 24일 검정회 회의에서 원활한 품평회 개최를 위해 검정농가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도록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하고 뒤이어 품평회 개최일자 논의 후 품평회 개최일자를 오는 9월 21일로 확정 짓고 발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배경설명을 설명하였다.

해외소식

뉴질랜드, 충치 예방 효과 우유 개발 연구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치과대학과 연계하여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우유를 개발하여 활용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뉴질랜드 국립연구기관인 아그리서치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연구는 우유내 초면역물질을 활용하여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오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새로운 유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우유내 특정 면역글로브린 물질이 위, 장, 폐는 물론 코, 귀 등의 점막조직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내바 있는데 이러한 물질을 적절하게 우유에서 생산 시 구강질환 치료제는 물론 여행객의 설사증세를 방지할 수 있는 분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1일 1회 착유능가 전체 4%로 확대

국제 유제품가격 상승으로 원유생산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1일 2회 착유에서 1일 1회 착유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 5년전 50호가 지금은 전체 낙농가의 4%에 달하는 500호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착유회수를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방목형 위주인 뉴질랜드 목장에서 1일 1회 착유시 오전 중 3시간정도 착유후 나머지 시간은 방목장의 관리 등 사양관리에 활용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낙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착유시간 축소로 농가당 10~20%정도 줄어드는 착유량은 사육두수를 늘려서 보충하고 있는데 실제로 뉴질랜드 낙농가들의 원유생산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세포수 등 유질은 이전에 비해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증가 지속

지난해 10월 브라질 중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해외소식

브라질 쇠고기수출협회는 지난 5월 말까지 쇠고기 수출이 전년 동기의 9억410만 달러 보다 13.33%가 증가한 10억2천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이집트, 영국, 불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홍콩, 이란, 레바논, 필리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격재개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격 재개했다.

30일 중국 농업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2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다시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2년6개월만이다.

농업부 발표에 따르면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추출한 뼈를 제거한 살코기 부위이며, 머리와 척추 뼈 등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2003년 12월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협의했고 미국 측이 수차례에 걸쳐 수입 제한에 불만을 표시하자 금수조치의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캐나다, 지난 10년간 낙농가 37% 감소,

1만6천224농가

2005년 캐나다의 낙농가수가 1995년에 비해 37% 수준인 9천476농가가 감소하여 1만6천224농가로 발표되었다. 캐나다 낙농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10년간 캐나다 주별 낙농가 변동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낙농가수를 가진 퀘벡주는 4,205농가가 줄어든 7천757농가이며, 온타리오주는 3,163농가가 줄어든 5천

346농가로 발표되었다. 이밖에 앨버타주 749농가, 브리티시 콜롬비아 667농가, 매니토바 530농가로 캐나다 전체 10개주 중 500농가 이상인 주가 단지 5개주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내 미국 낙농가수는 11만2천호에서 42%가 감소한 6만5천농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캐나다, 7번째 광우병 확인

캐나다에서 지난 2003년이래 7번째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확인됐다고 캐나다 식품검역소가 밝혔다.

식품검역소는 지난 10일 앨버타 에드먼턴 인근 농장에서 4살 된 소가 죽어 조사한 결과, 광우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식품검역소 측은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이 그동안 검역을 받아왔던 곳이라면서 감염원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식품검역소 측은 그러나 광우병소가 사료나 고기로 판매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례가 캐나다에서 광우병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휴대전화 이용 젓소분만 통보 시스템

개발

일본 토야마현 농업기술 센터 축산 시험장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젓소의 분만 자동 감지 통보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만이 임박한 소의 생식기에 삽입된 별도 장치가 배출되면서 온도나 빛을 감지해 휴대 전화로 통보해 주는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를 통해 분만 상황에 대한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감지하고 나서 분만까지 1시간 30분 정도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축주들이 우사로 가서 분만을 돕고 송아지를 처치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장치는 외출한 축주가 필요시 휴대전화를 통해 우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소의 상태

해외소식

를 확인하는 장치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지방 낙농제품 고혈압 완화 효과

낙농제품 특히 저지방 낙농제품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보스턴 소재 브리검 부인병원의 렉투스 박사 연구팀은 4천 797명을 대상으로 낙농제품 섭취와 혈압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치즈와 요구르트, 우유 등 낙농제품을 하루 세그릇 이상 먹는 사람은 반그릇이하로 먹는 사람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평균 2.6mm Hg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그러나 낙농 제품에 포함된 포화지방을 고려할 경우 혈압 저하 효과는 포화 지방을 덜 먹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포화지방을 덜 먹으면서 낙농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낙농제품을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3.5mm Hg 낮았다.

포화지방을 적게 먹으면서 낙농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낙농제품을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가능성이 54% 낮았다.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낙농'

중국 낙농 산업이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힘입어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비전도 낙천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유가공산업이 성장 폭을 높게 그리며 발전을 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4년 중국 유업협회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유제품의 소비증가가 2000년 대비 연 23%를 보이고 있으며 잠재시장 확대 전망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의 유가공회사들은 수년 전부터 합작, 또는 지점을 통해

자국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낙농은 중국에서 농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5년말 젖소 사육 1천1백10만두(전년대비 24.5%), 분유 생산량 1백64만톤(전년대비 27.97%), 액상우유 1천1백14만톤(전년대비 30.88%), 유가공매출 11조5천2백76억원(전년대비 27.8%)을 보이고 있다.

유가공 업체의 매출은 자본금 65억원 규모의 유가공업체는 6백90개이고, 그중 5백3개 업체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명유와 이리는 매출규모가 1조3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삼육, 광명유가공회사는 9천억원을 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원유 생산량 연간 2천6백톤으로 1인당 우유소비량 16kg로 올리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보급을 위해 매년 World Dairy EXPO China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에는 제4회 World Dairy EXPO China 2006을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북경 국제 농업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중국유업협회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장성국제전람유한책임공사에서 하고 있다.

전시회 출품은 유가공, 설비, 낙농기자재, 사료, 약품, 첨가제, 신소재, 물류 및 컨설팅, 서비스분야, 조사료 생산, 급이 급수, 정액저장 등 낙농관련 제품이 전시될 예정이고 국내 대표를 맡고 있는 (주)애그리비즈니스는 국내 전시 참가단에 한해 현지 가격을 30% DC를 추진키로 하고 희망 업체에 접수를 받고 있다.